



**[라이프]**  
사탕 대신 향수  
화이트데이  
스몰러서리 든다  
니



**[르포]**  
노마스크  
캠퍼스 가보니  
“대학생활 실감나요”  
L7



청각장애아동에 소리를, 환경보호로 미래를

# ‘자리이타’ 정신 새긴 ESG경영으로 희망빛 밝힌다



교보생명

고(故)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기업의 100년 장수를 위해선 이윤 추구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을 늘 피력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또한 이같은 경영관을 이어받았다. 현재 신 회장의 경영철학은 ‘자리이타(自利利他)’다. 대접받고 싶다면 타인을 존중하라는 사자성어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소비자의 성공을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 ◆ 청각장애 수술비…“더 따뜻한 사회”

교보생명은 지난해 연말을 맞이해 네 번째 ‘다솨이 소리빛 산타’ 행사를 열었다. 그간 인공와우수술과 언어 재활치료비를 지원한 청각장애 아동 가정에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들을 준비했다. 인공달팽이관의 외부 장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전기제습기와 인공와우망핀 그리고 교보생명 임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적은 편지도 있었다.

교보생명은 ‘사랑의달팽이’와 손잡고 지난 2019년부터 ‘와우 다솨이 소리빛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청각장애 아동을 위해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언어 치료를 돕는다. 현재까지 127명의 아이들에게 검사비와 수술비, 언어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올해도 40여 명의 아이들을 선발해 수술비 등을 후원할 계획이다.

청각장애인에 관한 편견 해소에도 나선다. 청각장애 인식 개선 동화책을 공동 발간해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 도서관 등 2000여 곳에 배포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의 언어 재활을 돕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로 소리교재를 제작하는 ‘소리모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 환경 보호…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교보생명은 환경 보호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12월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에 동참했다. ‘프런티어-1.5D’ 개발 추진을 도우며 ESG 경영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런티어-1.5D’는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는 국제적 합의를 담고 있다. 교보생명을 비롯한 참여기업들은 기후리스크 관련 데이터 분석과 연구 협력을 담당한다. 영국대사관은 기후리스크 모형 개발을 위한 자문을 진행하며 이화여자대학교는 연구모형 개발을 맡았다. 금융감독원은 코디네이터로서 전체 협업을 조율한다.

기후리스크는 크게 ‘물리적 리스크’와



① 교보생명 임직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서울 종로 교보빌딩에서 진행한 ‘다솨이 소리빛 산타’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②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폴린 크로스 주한영국대사,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남이현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  
③ 교보생명이 광화문글판을 활용해 가방을 만들었다. /교보생명

## 청각장애아동 수술·언어치료 지원 127명 환아 후원, 올해 40여명 선발 시민 참여 ‘소리 교재’ 제작 캠페인도

## 업계 첫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동참 체계적 관리 통해 ESG경영 가속화

## 임직원 대상 환경보호 아이디어 공모 자발적 친환경 조직문화 마련 앞장 폐소재 메신저백 판매 등 선순환 지향

‘이행 리스크’로 구분한다. 교보생명은 이행 리스크 예방에 초점을 둔 경영 전략을 세웠다.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발생하는 금융업권의 손실을 추정해 위험 관리와 친환경 경영 전략을 수립한다.

향후 이상기후 현상으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거나 고탄소 기업의 주식과 채권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 각종 위험을 예측, 분석한다.

교보생명은 향후 기후리스크를 체계적

으로 관리해 ESG 경영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관련 경영전략 수립을 통해 지배구조, 관리 지표, 감축 목표 구축 등 공시 관련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방침이다.

### ◆ ESG경영 사내 문화로 자리매김

교보생명은 ESG경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 번 쓰고 버린 종이컵, 무분별한 출력물 인쇄 등은 과거의 사무실 풍경이다. 모든 부서원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했다. ‘교보가 으스스(ESG)해 에코(Eco)투게더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인 친환경 조직문화 마련에 힘 쓰고 있다. ‘컴퓨터 절전 기능 사용하기’, ‘난방온도 2도 낮추고 냉방온도 2도 높이기’ 등이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책정된 캠페인이 지켜지면 회사는 ‘희망나무’ 두 그루를 기부한다. 현재까지 실천 다짐 서약에 참여하고 환경보호 교육을 이수한 임직원은 3350여명에 이른다.

MZ세대 소비자를 정조준한 재활용 사업도 진행했다. 광화문글판 폐소재를 업사이클링해 만든 메신저백을 교보핫트랙스에서 판매했다. 교보핫트랙스 주요 구매층이 MZ세대인 점을 감안해 낮은 수준의 판매 가격을 책정했다.

가방끈은 자동차 안전벨트를 재활용했다. 가방에 쓰인 모든 소재는 세척, 살균 등 엄격한 품질 및 공정 관리를 거쳤다.

교보생명은 폐자원을 활용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선순환을 지향했다. 판매한 가방의 수익금은 환경단체에 기부했다. 기부금 전액은 국내 초등학교 내 학교숲을 조성하는 데 사용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구를 위한 착한 소비가 기부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올버햄튼 황희찬 부상 복귀 1분만에 리그 첫골 /사진 뉴시스  
▲FIFA U-20 월드컵 24개 참가국 확정...한국 3연속 본선 진출

▲최지만, MLB 시범경기서 안타...상대 박효준도 첫 안타  
▲한국, WBC 8강 간다면 쿠바 만났다...A조 쿠바·이탈리아 8강 진출



▲NBA 서부 1위 덴버, 요키치 트리플더블 활약에도 3연패 수렁  
▲세플러, 남자 골프 세계 1위 복귀...임성재 18위·김주형 19위 /사진 뉴시스